

영원한 충청인의 고장 ‘계룡산’

이 해 준 (공주대 교수, 본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계룡산 높고 높이 솟았는데 / 충청의 역사와 함께 한 계룡산 /
왜 ‘계룡산’ 일까 / 백제가 숨쉬는 오랜 역사의 산 / 중약단이 말하는 것 /
계룡산의 세(?) 얼굴 / 갑사와 신원사와 동학사 / 남매탑에 얹힌 사연 /
정도령은 또 언제인가 / 계룡산 문화유적 답사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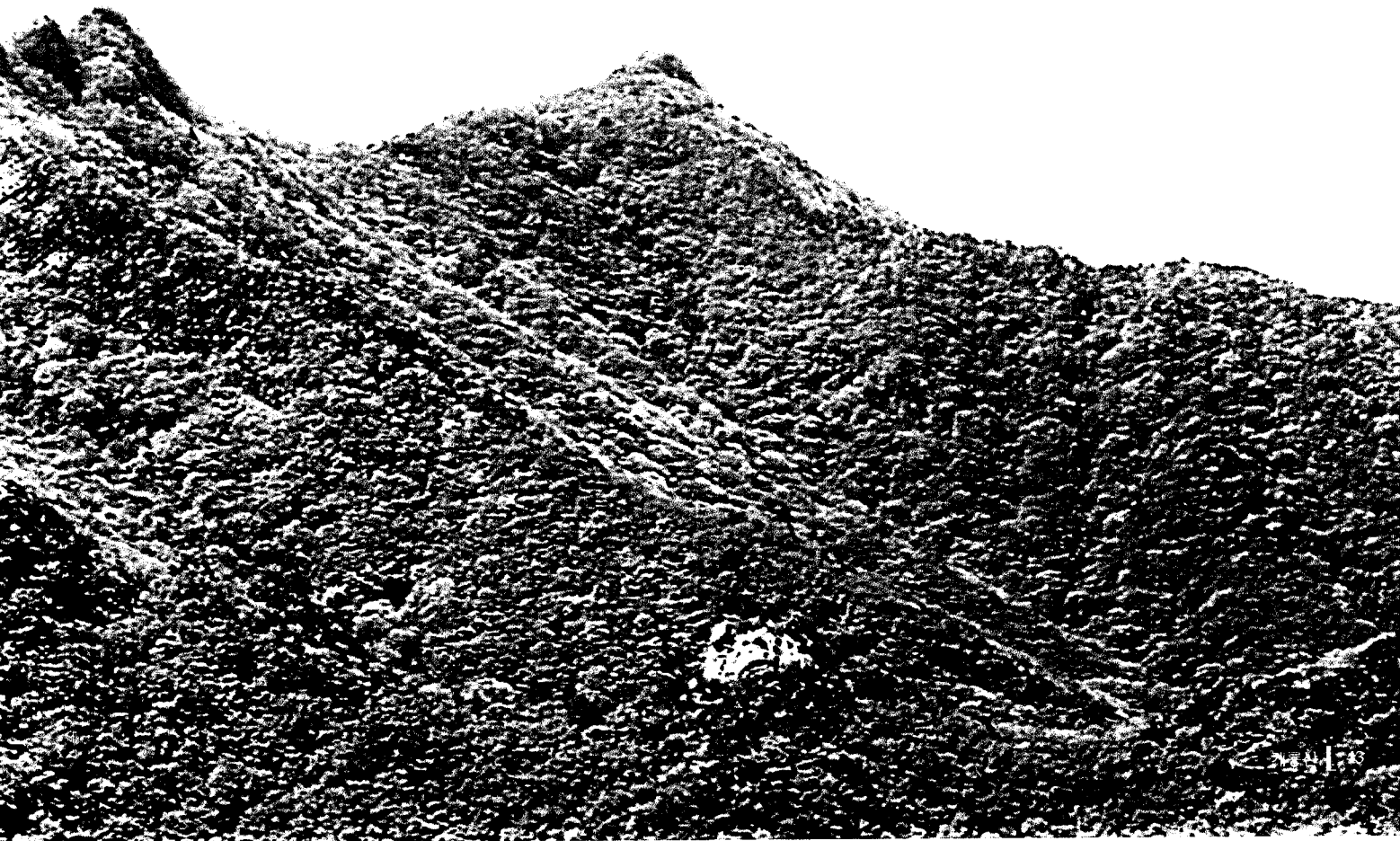
계룡산 높고 높이 솟았는데

계룡산 높고 높아 푸른 층층 솟았는데
맑은 기운 굵실굵실 장백(長白)에서 달려왔네.
산에는 못이 있어 용이 살고
산에는 구름 있어 만물을 적셔주네
내 일찍이 이 산 속에서 놀아보았더니
신령스러움이 다른 산과 사뭇 달랐네
구름 모여 비가 되어 천하를 적실 때는
용은 구름을 부리고 구름은 용을 따르더라

조선의 문장가 서거정은 「계룡산의 한가로운 구름(鸞嶺閑雲)」이라는 시에서 계룡산의 신비한 자태를 이렇게 읊었다.

‘험한 돌산으로 이어진 연봉이 마치 닭벼슬을 쓴 용과 같다’ 해서 계룡이라 불리는 이 산은, 주봉인 상봉(천황봉, 845m)을 비롯하여 연천봉(740m), 삼불봉(750m), 문필봉(796m) 그리고 관음봉·황적봉·도덕봉·신선봉 등 크고 작은 여러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신령스러움이 다른 산과 사뭇 달랐네
구름 모여 비가 되어 천하를 적실 때는
용은 구름을 부리고 구름은 용을 따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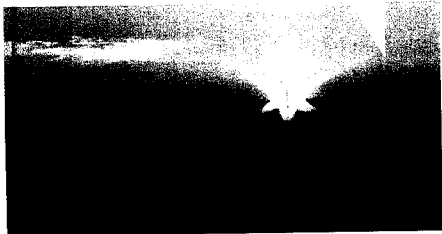
역사적으로도 계룡산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신령스러운 국중의 명산이었다. 백제 때 이미 계룡(鷄龍), 또는 계람산(鷄藍山) 등의 이름으로 바다 건너 중국 당나라에까지 알려졌었고, 통일신라 때는 5악의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그런가 하면 계룡산에는 의자왕과 태조 이성

계 같은 역사적 인물의 전설이 배어 있고, 갑사·동학사·신원사, 그리고 구룡사 같은 유서 깊은 사찰들이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남겨주는 현장이다.

그런가하면 조선개국 초에는 왕도 후보지로서 건설되다가 중단된 바도 있었으며, 조선후기의 도참설과 관련된 『정감

록』으로 더욱 유명한데, 여기에서는 도읍지로뿐 아니라 피난지로 적혀 있어 이후 도참과 민간신앙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으며, 근대 이후에는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흥종교들의 본산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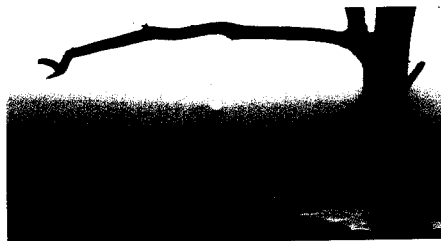




제1경 천황봉의 일출



제2경 삼불봉의 눈꽃



제3경 연천봉의 낙조



제4경 관음봉의 한가로운 구름

• 제1경 천황봉의 일출

계룡산 최고봉인 천황봉 정상에 서면 계룡산뿐 아니라 대전을 비롯해 공주, 논산 일원의 산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 본다.

• 제2경 삼불봉의 눈꽃

세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삼불봉에서 보면 설개동~천황봉으로 연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의 형상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또 이곳에서는 동학사계곡과 갑사계곡도 한눈에 들어와 계룡산의 전모를 볼 수 있다. 그 풍광이 사철 아름답지만, 그 중 한 겨울의 눈꽃(雪花)이 피었을 때를 최고로 친다.

• 제3경 연천봉 낙조

계룡산의 서쪽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연천봉에서 서쪽으로 펼쳐진 들녘을 석양에 바라보는 풍경이다. 저녁노을이 물들 때 산야는 붉게, 멀리 백마강 물줄기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등 절경이 펼쳐진다.

• 제4경 관음봉의 한가로운 구름

관음봉은 계룡산의 중앙에 위치한 봉으로 이 곳에서 하늘을 떠다니는 한가로운 구름을 보면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동학사계곡 신록 • 제5경

설개봉, 장군봉, 황적봉 등 계룡산을 대표하는 능선들 사이의 깊은 계곡으로 수림이 매우 울창하며, 이곳의 신록은 더욱 빼어난 절경을 이룬다.

갑사계곡 단풍 • 제6경

갑사계곡의 가을 단풍은 아름답기로 이름 높다. 옛부터 '봄 마곡, 가을 갑사'라 하여 가을철 갑사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일품이다.

은선폭포 운무 • 제7경

옛날 신선들이 폭포의 아름다움에 반해 숨어 지냈다는 은선 폭포는 절벽과 녹음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특히 이 폭포는 안개가 자욱할때의 풍광이 제일이다.

오누탑 명월 • 제8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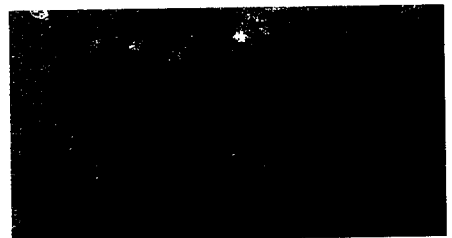
남매탑이라고도 불리는 오누탑에는 멸망한 백제의 왕족과 호랑이가 얹고 온 여인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한다. 이 탑에서 관망하는 달빛이 계룡산의 마지막 절경이다.



계룡팔경



제5경 동학사계곡의 신록



제6경 갑사계곡의 단풍



제7경 은선폭포 운무



제8경 오누탑의 명월

충청의 역사와 함께 한 계룡산

계룡산은 백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청의 정신사적 태반을 형성하며 그 상징으로 오래도록 우리들과 함께 한 명산이다. 역사상 계룡산의 부각은 5세기 후반 백제의 공주 천도에서 비롯되어 단순

한 지방의 산이 아니라 국도의 진산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한다. 이후 계룡산은 명실상부하게 충청인의 역사·문화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열과 정신을 남겼다. 계룡산이 갖는 이러한 문화사적 성격은 국가적 제사처로서의 계룡산, 불교문화 성지로서의 계룡산, 그리고 풍수도참 신앙과 관련한 계룡산 등의 세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국가제사처로서 계룡산은 우리의 전통 신앙의 하나인 산천신앙의 맥을 이은 것이다. 특히 계룡산 제사처는 천황봉과, 후일 계룡산사가 마련된 신원사 지역과 중악단이다. 이러한 산천신 숭배의 전통은 조선후기 이후 민간신앙의 본산으로 자리잡아 현재도 신원사 부근의 무속 곳판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불교문화는 백제시대로부터 출발하여 신라-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계룡산을 배경으로 발전하였다. 계룡산의 불교문화 발전은 당 시대의 불교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계룡산의 경우 백제시대 왕도지역 소재의 산악이었다는 지리적 위치는 이후의 불교문화 발전에도 일정한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구룡사와 감사, 동학사, 신원사 등의 대소 사찰이 계룡산을 중심으로 밀집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불교문화 유산도 보유하게 되었다.

풍수도참과 관련한 계룡산의 부각은 오랜 연원을 지닌 전통적 산천 숭배신앙에서 비롯하여, 조선왕조 개국과 함께 새로운 도읍의 후보지로 선택되는 등의 정치적 측면에 의하여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조 말기 사회의 말기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바라는 민중의 염원까지 계룡산은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1〉 계룡산의 문화유적

구분	문화재명칭	지정번호	소재지
국가지정	감사삼신패불탱	298	감사 경내
	신원사노사나불패불탱	299	신원사 경내
	감사철당간 및 지주	256	감사 경내
	감사부도	257	감사 경내
	감사동종	478	감사 경내
문화재	보물		
	월인석보판본	582	감사 경내
	청량사지 5층석탑	1284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청량사지 7층석탑	1285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신원사 중악단	1293	신원사 경내
사적	학봉리 도요지	333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감사석조약사여래입상	50	감사 경내
	감사대웅전	105	감사 경내
	감사사적비	52	감사 경내
	감사석조보살입상	51	감사 경내
유형	감사대적전	106	감사 경내
	감사강당	95	감사 경내
	신원사대웅전	80	신원사 경내
	신원사 5층석탑	31	신원사 경내
	상신리당간지주	94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문화재	속모전	67	동학사 경내
	삼은각	59	동학사 경내
	초혼각지	18	동학사 경내
	구룡사지	39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표충원	52	감사 경내
기념물	천진보탑	68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동학사 삼층석탑	58	동학사 경내
	동학사 삼성각	57	동학사 경내
	팔색조	204	
	사향노루	216	
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	323	
	황조롱이	323	
	소쩍새	324	
	솔부엉이	324	

계룡산은 백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청의 정신사적 태반을 형성하며
 그 상징으로 오래도록 우리들과 함께 한 명산이다. 역사상 계룡산의 부각은 5세기 후반
 백제의 공주 천도에서 비롯되어 단순한 지방의 산이 아니라 국도의 진산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한다.
 이후 계룡산은 명실상부하게 충청인의 역사·문화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얼과 정신을 남겼다.

왜 ‘계룡산’일까

계룡산은 계람산(鷄籃山)·옹산(翁山)·서악(西岳)·중악(中岳)·계악(鷄岳)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는) 삼산 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大祀·中祀·小祀로 하였다. 이 중 中祀는 오악을 제사하는 것이다. 오악은 동악 토함산, 남악 지리산, 서악 계룡산, 북악 태백산, 부악(공산이라고도 함)이다. (『삼국사기』32, 잡지 제사조)라 하여 “서악 계룡산”으로 이미 통일신라 때에 국중에서 유명한 명산으로 지목받고 있었다. 이는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천황봉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들이 많이 수습되는 것으로도 확실하다.

‘계룡산’ 이 산 이름은 닭(鷄)과 용(龍)이라는 두 동물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계룡산이 계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산봉우리와 줄기가 마치 닭의 벼슬을 머리에 단 용처럼 생겼다는 형상설이다.



▲ 천황봉에서 수습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들

그러나 좀더 연원을 따지면 용은 조금 뒤에 덧붙여진 것이고, 원래는 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록상 계룡산의 가장 오랜 이름은 백제시대 계람산(鷄籃山) 혹은 계산(鷄山)이고, 용이 포함된 이름의 계룡산은 통일신라 때부터 기록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닭은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가축이다. 그리고 닭은 하루가 새롭게 열리는 새벽을 알리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여, 한 시대를 미리 알리는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가하면 용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의 대표로 상상의 동물이며, 그런 때문에 왕과 같은 지극히 높은 자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볼 때 계룡산은

새벽을 먼저 알리는 선지자적 상징성, 그리고 고귀함을 나타내는 지극히 특별한 의미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풍수적으로 계룡산의 형국이 ‘금계포란형(金雞抱卵形)’,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 ‘계룡’의 어원에 대해서 국어학자들은 백제어 기원설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새미레’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의미는 ‘신원(新原)’, ‘신국(新國)’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 충청도 공주목지도 중의 계룡산 부분



신원사는 현재의 '신원사(新元寺)'가 아니라 본래는 '신원사(神院寺)' 또는 '신정사(神正寺)'로 불리었으며, '신원(神院)'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제사처의 의미라는 것이다.

백제가 숨쉬는 오랜 역사의 산

산악이 갖는 위엄과 신비는 사람들의 외경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고대로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계룡산에 대한 산악신앙이 국가의 제사처로 지목되는 것은 백제시대 웅진천도 이후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왕도인 공주와 부여를 보호하는 계룡산은 정치적 의미와 비중이 높았을 것이고,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부여가 함락되자 의자왕이 계룡산으로 피해왔다가 공주 공산성으로 갔다는 것이나, 계룡산에 백제시대에 신앙처가 있었다는 구전 설화들은 그 같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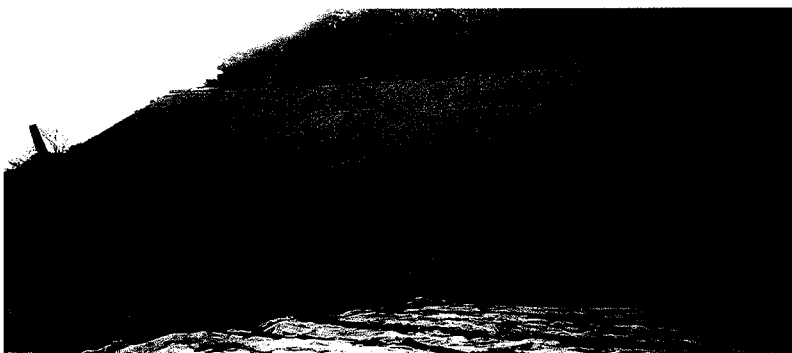
는 있지만, 그 내용은 의자왕이 웅진으로 도망하였다는 것과 5일만에 다시 부여로 와서 항복하였음을 알려줄 뿐이다. 즉 기록만으로는 의자왕이 확실하게 계룡산 어디에 머물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의자왕과 관련된 구전과 지명이 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 내용을 표집하여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고왕암(古王庵) : 신원사(新元寺) 동쪽 위에 있는 절. 큰 바위 밑에 암자가 있는데 660년(의자왕 20) 6월에 이 절을 짓고, 왕자 융(隆)이 이곳에서 나·당연합군을 피하다가 7년만에 항복하였으므로 고왕암이라 한다 함.

○ 마명암(馬鳴巖, 騰雲庵) : 고왕암 옆에 있는 절. 백제 왕자 융(隆)이 고왕암에서 피난하다가, 신라군에 잡혀가게 되었는데, 왕자의 말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슬피 울다가 죽었다 함. 암자의 창건은 신라 665년(문무왕 5)에 등운대사(騰雲大師)가 창건 등운암이라 불렀으나 후에 이 태조가 중건하여 계룡산의 정씨의 왕기를 누른다는 뜻으로 압정사(壓鄭寺)라 하여 오늘에 이름.

이 전설은 아주 정확한 시기와 역사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자칫 사실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 정확성

- ▼ 등운암(암정사)의 옛 모습(위)
- ▼ 고왕암 전경(아래)



정을 전해주는 일면이다.

계룡산 신원사 골짜기에는 오랜 구전으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피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물론 백제 멸망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의 공주 쪽으로의 행적을 적고

때문에 후대의 부회 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 그 근거가 되어줄 만한 유적이나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추측은 그저 추측에 머물 뿐이다. 그리고 고왕암의 창건 년대가 660년 6월이었다거나, 신원사를 651년(의자왕 11) 선덕화상이 창건했다고 보는 것, 또 앞의 지명전설처럼 등운암(마명암)을 665년 등운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 구전의 사실성은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신원사가 원래는 “神院寺”로 불려졌었다는 점과, 신원사 경내에서 백제시대의 연화문 와당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윤용혁은 이를 토대로 신원사가 계룡산의 사찰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 가능성이 많고, 특히 사찰 성립 이전에는 이곳이 계룡산 제사처로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지 않았았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신원사는 현재의 ‘신원사(新元寺)’가 아니라 본래는 ‘신원사(神院寺)’ 또는 ‘신정사(神正寺)’로 불리었으며, ‘신원(神院)’이라는 것은 다른 아닌 제사처의 의미라는 것이다.

백제시대의 계룡산 제사는 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으나, 신라 통일 이후 계룡산을 전국 5대 명산의 하나로 지정한 것도 이같은 백제시대 계룡산이 갖는 정치·종교적 의미에 주목한 것이라 하겠다. 신라 오악 신앙에 의한 국가적 제사의 전통은 제사의 전통은 후대로 계승되어 고려와 조선조에 이어졌는데, 고려 태조 26

년(943) 4월 계룡산을 비롯한 오악에 대한 제사의 기록이 있고, 현종 9년(1018) 2월에는 오악을 비롯한 산천신에 대한 작호 하사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같은 계룡산을 비롯한 산천신에 대한 제사는 계속되는데, 태조는 계룡산에 호국백(護國伯)이라는 작호를 내리고 있다. 즉 『태조실록』 2년 2월조에 보면 전국의 주요 명산대천 서낭에 작호를 내리는 기사가 보이는데,

진국공(鎭國公) : 송악(松嶽)서낭
계국백(啓國伯) : 화령(和寧), 안변(安邊),
완산(完山)서낭
호국백(護國伯) : 지리산(智異山), 무등산(無等山),
금성산(錦城山), 계룡산(鎭龍山),
감악산(紺岳山), 삼각산(三角山),
백악산(白岳山) 및 진주(晉州)서낭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태종 13년 10월에는 태종이 사람을 직접 보내어 계룡산신과 금강의 웅진(곰나루)에 제사를 지낸 사실이 있다. 이로써 볼 때 계룡산신에 대한 국가적 제사는 고대 이래 정해진 규례를 따라 거행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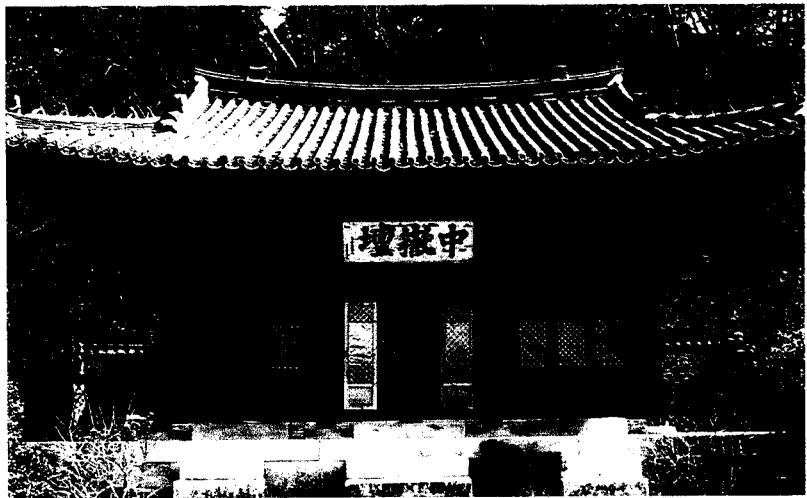


중악단이 말하는 것

조선 초기의 지리지『동국여지승람』에 서는 계룡산 제사와 관련된 기사를 ‘계룡산사(鷄龍山祠)’라는 항목에서 적고 있다. 고대이래 계룡산신에 대한 제사처인 사당은 ‘공주 남쪽 40리 지점’이라 하여 오늘날 신원사에 해당됨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전통은 신원사 중악단으로 귀결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셈이다.

계룡산 신원사 경내에 있는 중악단은 계룡산 신당을 국가적인 품격에 맞게 격상시켜 불허진 명칭으로 ‘중악(中嶽)’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에 묘향산(北嶽), 지리산(南嶽)과 함께 계룡산이 ‘중악’으로 3악의 하나였던 때문이다. 계룡산 신당이 ‘중악단’으로 호칭되면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한말에 고종과 민비에 의하여 신원사 중악단이 중건되면서였다.

중악단은 고종 16년(1879) 민비에 의하여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월주화상이 폐허가 되어 가는 건물을 재건하고 중악단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원래 ‘신원사(神院寺)’로 불려지던 신원사가 현재의 이름인 ‘신원사(新元寺)’로 개칭된 것도 구한말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로 황제가 된 고종이 이듬해 1889년 계룡신사(鷄龍神祠)의 격을 올려 중악단으



▲ 중악단 전경



▲ 계룡산 산신제 광경

로 개칭하고 건물을 새로 위엄있게 짓는 한편 중악단이 위치한 ‘신원사(神院寺)’를 새로운 제국의 기원을 연다는 의미에서 ‘신원사(新元寺)’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1923년 동아일보의 기사)

같은 계룡산 자락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같은 사찰이면서도 시기에 따라
갑사와 신원사, 동학사는 서로 다른 문화로서
굵적굵직한 자취들을 남겨 놓고 있다.
갑사골짜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채취와,
신원사 골짜기에서 배어 나오는 숨소리.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동학사 골짜기의
여러 모습들이 지녔던 옛 모습과 의미를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계룡산의 세(?) 얼굴

계룡산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정신사적 전통은 이곳에 그에 걸 맞는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남겨두었다. 대개는 수려한 단풍과 산행의 묘미 속에 일반인들에게 소외 받고 있는 이들 문화유적들은 얼른 보면 모두가 불교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갑사와 동학사, 신원사가 그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좀더 다른 각도에서 계룡산의 문화를 구분하여 보자.

같은 계룡산 자락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같은 사찰이면서도 시기에 따라 갑사와 신원사, 동학사는 서로 다른 문화로서 굵적굵직한 자취들을 남겨 놓고 있다. 갑사골짜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채취와, 신원사 골짜기에서 배어 나오는 숨소리,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동학사 골짜기의 여러 모습들이 지녔던 옛 모습과 의미를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갑사의 부도와 철 당간, 부도 발과 대웅전, 동종을 보면서 갑사 골짜기에서 우리는 나말여초 이래 계룡산의 불맥을 이어온 갑사의 모습을 발견한다. 물론 현재의 대웅전이 있는 구획과 보물로 지정된 부도와 철당간이 있는 대적전 구역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편차가 있더라도 그것은 매한가지이다.

이에 비하여 보면 계룡산의 서남쪽 신원사 부근의 모습은 너무나도 문화적 차이가 느껴진다. 신원사라는 사찰이 물론 불교문화로서 상징되고는 있으나, 이와 함께 이곳의 여러 골짜기들에서 벌어지는 무속적인 당굿판의 다양한 모습들은 계룡산신 제사처로서 중악단과 함께 사뭇 불교와는 차이가 나는 다른 모습들이다. 무속적·민간신앙적 풍모가 진한 것이다.

그러면 동쪽의 동학사 골짜기는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 동학사는 현재는 비구니들의 수련처로서 매우 유명하다. 그리고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관광인파가 항상 줄을 잇는 명소이지만, 이곳에는 사찰의 내음과 함께 숙모전이네 삼은각이네 하는 선비들의 건물들이 앞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어쩌다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동학사의 역사와 이들 유교적 문화는 일찍부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생하여 왔던 것이다.

또 우리가 느껴야 할 계룡산 문화의 수수께끼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바로 구룡계곡의 대규모 사찰 구룡사의 문제이다. 왜 그렇게 큰 사찰이, 빠른 시기에 그 골짜기에 조영되었으며, 또 왜 후대로 전승되지 못한 것일까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갑사와 신원사와 동학사

계룡산에는 이미 백제시대 때부터 절이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관련 유물들도 일부는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신원사 경내에서 발견된 백제 연화문 와당편이라든가, 약간 불확실하지만 구룡사(반포면 상신리)에서 발견되었다는 백제 와당편이 그런 것들이다. 백제의 불교수용과 특히 공주 천도 이후 불교가 보다 폭넓게 발전하였다고 본다면 명산 계룡산 자락에 불교 사원이 들어서지는 것은 당연했으리라.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계룡산 지역에서 백제시대 절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계룡산이 불교 성지로 보다 분명히 부각되는 것은 통일신라 때의 일이다. 통일신라시대 계룡산에서 가장 번창한 사원은 갑사였다. 갑사는 옛 문헌

에 '갑사(甲寺)' 혹은 '계룡갑사(鷄龍甲寺)'로 표기되는데, 통일 이후 특히 화엄종 사찰로 이름이 높았다. 갑사는 계룡산의 여러 절 중에서 웅천주의 치소였던 공주에 가장 근접한 위치이며, 신라 통합은 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화엄종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갑사가 중앙 교단으로부터도 일정한 뒷받침을 받은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 계룡산에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갑사이다. '갑사'라는 말뜻 자체가 '첫째'라는 절 이고 보면, 역시 계룡산에서는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번창하였던 절이 바로 갑사였다. 지금도 갑사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지주, 고려시대의 부도, 조선시대에 지어진 각종의 절 집들, 그리고 작은 돌부처며 종(鐘)이며 월인석보의 판목이며 다양한 재료들이 이곳 저곳에 흩



어져 있다. 갑사의 골짜기는 예로부터 갑사구곡(甲寺九曲)이라 하여 더운 여름이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한말 일제 때의 어느 유명인사는 바로 이 갑사 절 곁의 물가에 별장을 짓고 자기 과시의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갑사 철당간(鐵幢竿)과 지주(支柱)

갑사의 원금당지의 서측 끝부분 아래의 평평한 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보물 제256호로 지정되었다. 철당간은 지름 50cm의 철통 24개가 3m높이의 두 개의 지주에 연결되어 세워져 있다. 본래는 28개였는데 지금은 24개만 남아 있다. 지주의 대석은 흙 속에 파묻힌 상태인데 장식이 없이 소박하나 튼실하다. 지주의 조각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중기의 것으로 여겨지는데 절에서는 통일신라초기인 680년에 건립했다고도 한다.

갑사 부도(甲寺 浮屠)

갑사경내 대적전 앞에 있는 고려시대 부도로 높이 205cm, 보물 257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는 계룡산 중에 쓰러져 있던 것을 1917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이다. 갑사 부도는 팔각 원당형으로 입체적이고 섬세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부도 전체가 크지 않은데 기단의 사자 조각은 딱 힘있는 느낌을 주고, 그 위로 꿈틀거리는 구름 무늬조각 위에 천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천상세계가 되는 말각 몸 돌의 네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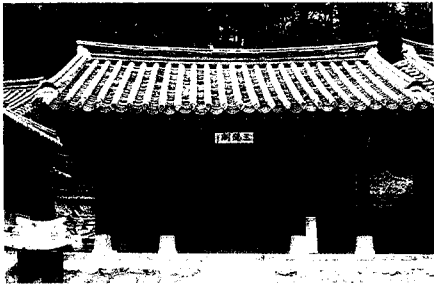
에는 사리를 보호하는 의미로 문 양쪽에 사천왕이 새겨져 있으며, 지붕 돌에는 기왓장무늬가 새겨져 있고 상륜부에는 연꽃 봉오리가 있다. 우리 나라 부도 중에서 수려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고려초기의 작품이지만 정작 이 부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 갑사 철당간과 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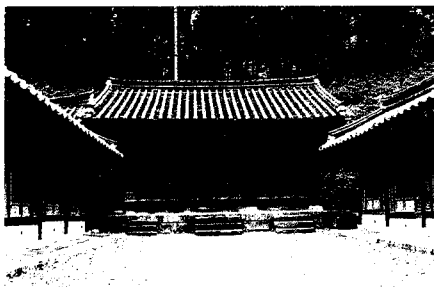


▲ 갑사 부도



삼은각(三隱閣)

동학사 경내에 숙모전과 함께 자리잡고 있는데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은각의 건립은 태조 3년(1394년)에 길재가 동학사 승려 영월(影月)·운선(雲仙)과 함께 단을 쌓아서 고려 태조를 비롯한 충정왕, 공민왕, 정몽의 초혼제를 지낸데서 비롯된다. 그 뒤 정종 1년(1399)에는 고려 유신 유방택(柳方澤)이 길재가 쌓은 단위에 정몽주와 아색을 제사하였으며 다음해에 공주목사 이정간(李貞幹)이 양은각(兩隱閣) 짓게 된다. 1421년 길재가 추가로 제향되면서 비로서 삼은각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후 광해군 때에 유방택, 손조때는 이승인과 나계종을 차례로 추배하여 현재는 모두 6인을 제향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한국전쟁때 소실된 것을 1960년 이후에 중건한 것이다.



숙모전(肅慕殿)

동학사경내 동편에 위치해 있으며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조 2년(1456)에 단종 복위를 준비하던 사육신들이 세조에 의해 죽음을 당하여, 노량진에 시신이 버려졌다. 이 때 김시습이 몰래 노량진에 임정하고 동학사에 돌아와 삼은각 옆에 단을 만들어 사육신에 대한 초혼제를 지냈는데, 이 초혼단이 숙모전의 효시이다. 그 후 세조가 동학사에 왜 제단을 살피며 단종을 비롯하여 세조 찬위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비단에 써서 주며 초혼제를 지내게 한 뒤 초혼각을 짓게 하였고 도장과 신표, 토지 등을 하사하며 동학사(東鶴寺)로 사액한 다음 승려와 유생이 함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그 후 숙모전은 동학사 경내에 있는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영조 4년(1728) 신천영의 난으로 소실되었다가 고종 6년(1869)에 만화(萬和)·보선(普善)이 중건하였다. 1904에 숙모전으로 이름을 고쳐 사액하였다.



동학사와 신원사도 계룡산의 품에서 성장한 큰절들이다. 동학사는 계룡산 동편의 수려한 산세를 따라 조영되었고, 신원사는 계룡산 신사(神祠)가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보한다.

동학사가 유명한 절이 된 것은 근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동학사가 덜 유명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 동학사의 가을 단풍

옛날 그 절의 존재가 미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동학사에는 조선 초에 고려의 왕들과 고려에 충절을 바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등 고려 충절신의 위패를 모신 삼은각이 있으며 사육신의 원혼을 위령하는 숙모전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동학사는 불교 신앙의 공간과 별도로 고려말 조선 초의 충절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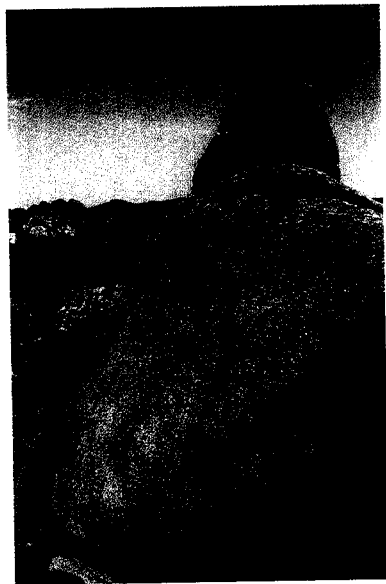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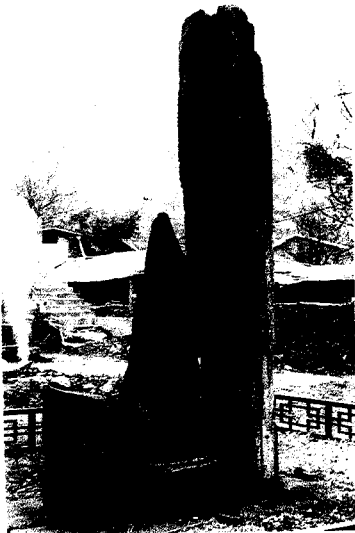
한 위령의 제사처가 공존함으로써 독특한 역사성을 계승하여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계룡의 사찰 중에서 가히 동학사는 유불(儒佛)의 교감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할만하다. 현재의 동학사는 비구니들의 도량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동학사 입구에 홍살문이 서 있는 까닭도 삼은각, 숙모전이 있는 때문이다.

지금은 넓은 절터만 남아 있지만 갑사와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계룡산 동북편 기슭(반포면 상신리)에 구룡사가 조영되어 있었다. 구룡사(九龍寺)는 신라, 고려 시대에 걸쳐 번영하였는데, 사역(寺域)의 규모에 있어서 계룡산 최대의 사원으로 꼽힌다. 현재에도 통일신라기의 당간지주만이 외롭게 서서 당시의 영광과 번성함을 흔적으로나마 알려주고 있다.

구룡사는 그 광대한 규모에 비하면 이 사찰에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고, 폐사된 지도 오래이기 때문에 번영의 배경이나 폐사의 이유 등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다. 1980년대 말 공주대 박물관의 절터 발굴작업에 의하여 그 폐사 시기는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되고 있다. 구룡사가 있는 계룡산의 골짜기는 ‘용산구곡(龍山九曲)’으로 불려왔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금잔디고개와 맞닿는다.

구룡사지 당간지주(九龍寺址 幢竿支柱)

구룡사의 유물로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충청남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절터에서 동으로 약 150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2개 중 하나는 절단되어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크기는 3.6m로 조성의 수법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2기의 탑이 주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부여 정림사탑과 같은 백제 스타일로 건축된 것이라는 점이다. 백제의 탑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부여와 익산에 각각 1기씩이 있다. 백제 멸망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백제스타일은 자취를 감추었고 경주에서 볼 수 있는 신라스타일의 탑들이 백제지역에 들어섰다. 그러던 것이 신라가 망하고 난 이후 우후죽순으로 옛 백제 지역에서 백제스타일의 탑 건축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뉘탑의 건립시기는 대략 고려 초로 짐작되고 있다. 백제의 옛 도읍지 계룡산 봉우리에 신라가 망한 다음 세워지는 2기의 백제계통의 탑, 그것은 백제정신의 계승을 회구하는 백제인 후예들의 간절한 열망과 정신이 불교적 구도의 옷을 입고 표현된 것이었다.

▼ 남매탑 전경



남매탑에 얹힌 사연

그리고 이곳에 유명한 오뉘탑(남매탑)이 있다. 7층과 5층의 2기로 된 오뉘탑(보물 제1284호와 1285호로 지정)은 동학사에서 감사로 향하는 서편의 등산로를 오르면 비로봉 아래의 산 중턱에 2기가 다정하게 세워져 있다. 원래 여기에는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기에 학술적으로는 ‘청량사지 쌍탑’으로 불리워지지만, ‘오뉘탑’ 또는 ‘남매탑’으로 더 많이 불리워지고 있다. 이 석탑에는 한 스님과 남매의 의를 맺은 비구니의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온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에 한 스님이 이곳에 작은 암자를 짓고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괴로운 몸짓을 하고 있었다. 이 상스럽게 여긴 스님이 호랑이 입 속을 들여다보니 큰 가시 하나가 목구멍에 걸려 있어 빼 주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호랑이는 한 아리따운 처녀를 등에 업어와 놓고 갔다. 은공에 보답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처녀는 상주사람으로 혼인날에 호랑이에 잡혀 온 것이었고, 스님은 처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그 처녀의 부모는 다른 곳으로 시집보낼 수도 없고 인연이 그러하니 거두어 주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스님은 그 처녀와 남매의 의를 맺고 비구와 비구니로서 수행하다가 한날 한시에 열반에 드니 그 두 사람의 사리를 모신 것이 바로 이 탑

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라 성덕왕 15년(716)에 당나라에서 입국한 상원화상이라고도 하며, 동학사

를 창건한 회이가 스승인 상원의 사리탑을 세우고 동학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한편으로 주인공이 백제왕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탑이 부여 정림사터 탑과 같은 백제계 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매탑 전설은 펍 종교적이고 교과서적 모범으로 종결되고 있지만 탑의 구성에 얹혀있을 사연들을 전혀 짐작할 수 없어 그 궁금증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 2기의 탑이 주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부여 정림사탑과 같은 백제 스타일로 건축된 것이라는 점이다. 백제의 탑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부여와 익산에 각각 1기씩이 있다. 백제 멸망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백제스타일은 자취를 감추었고 경주에서 볼 수 있는 신라스타일의 탑들이 백제지역에 들어섰다. 그러던 것이 신라가 망하고 난 이후 우후죽순으로 옛 백제 지역에서 백제스타일의 탑 건축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뉘탑의 건립시기는 대략 고려 초로 짐작되고 있다. 백제의 옛 도읍지 계룡산 봉우리에 신라가 망한 다음 세워지는 2기의 백제계통의 탑, 그것은 백제정신의 계승을 회구하는 백제인 후예들의 간절한 열망과 정신이 불교적 구도의 옷을 입고 표현된 것이었다.

감사, 구룡사, 동학사, 신원사 이외에도 문헌 기록에는 계룡산에 등라사(藤羅寺), 가섭암(迦葉庵), 울사(栗寺), 중심사(中心寺), 상원사(上院寺) 등의 사찰이 조선조

개천의 물은 옛날의 개천처럼
이산의 좋은 경치를 보여준다.
이산의 물은 옛날의 개천처럼
시계통산의 물처럼 조의 절들이 밀
려서 이산을 전한다.

개천의 절들은 개천 시에 때때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몽고군의 침략
이나 고려군 왜구의 침략, 개천의
왜란 때 왜군의 침략 등 여러 가지
바로 그것이다. 특히 개천의 피해는 개
천의 대부분이 개천을 끼고 그 때
때로 개천의 개천이 조영된 것
들이다.

계룡산에 대한 신비적 기대가 특히 고조된 데에는 조선조 후기 이래의 {정감록}의 예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였다. 정감록은 계룡산에 대한 도참적 예언서의 대표로서 17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 이 책에는 신도안에 대하여 '송도 500년에 이씨가 나라를 빼앗아 한양에 천도하였는데 한양 400년에 정씨가 나라를 빼앗아 계룡산에 도읍한다. 그리고 신도는 산천이 풍부하고 조야가 넓고 백성을 다스림에 모두 순하여 800년 도읍의 땅이다'라 적고 있다. 지금도 연천봉 꼭대기 강선대 바위에 새겨져 있는 "방백마각(方百馬角) 구혹화생(口或禾生)"의 명문에 대한 해석에서도 보여진다. 즉 전해지는 바를 토대로 이 기록을 해석하면 方은 4를 의미하여 방백은 400을 의미하고 馬는 80, 角은 뿔이니 2가 되어 482년이라는 설명이고, 口或은 나라 國의 파자이며 禾生은 移의 옛 글자로서 결국 이 글은 참서로서 조선왕조가 482년이 되면 망하고 나라가 바뀐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감록의 참위설은 민중 속에 오래도록 번져갔고, 왕실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한말에 보이고 있다. 즉 민비가 은밀하게 연천봉의 등운암 옛터에 압정사(壓正寺)라는 절을 세워 정씨의 왕기를 누르는 기원소로 삼았던 것이나, 민비가 여자 시녀를 보내 연천봉 위의 샘에서 몸을 씻고 아들을 빌어 이척(李适)

을 낳았다는 일화, 나아가 앞서 적은 바대로 중악단을 중건하면서 신원사의 이름을 대한제국의 신기원을 연다는 의미의 新元寺로 개칭한 것 등등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다.

현재 신도안에는 종교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 종교촌은 1924년 2월 동학의 한 교단인 시천교 제3세 교주 김구암이 신도안으로 그 본부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신들의 터전이 되었고, 1970년대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학계, 무속계, 기독교계 등 무려 104개의 교단들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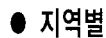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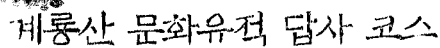
조선왕조가 망한 지는 이제 거의 1백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간혹 어떤 이

들은 이 새 도읍 새 나라의 지도자 정도령이 어디에 있나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6백년 전 새서울을 건설하려 하였던 바로 그 땅에 대한민국의 3군 지휘부가 들어선 사실을 들어 이것이 옛 예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게 아닌가 하고 가우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하면 바로 그 계룡산에 인접하여 20세기에 새로 들어선 1백여 만명 규모의 대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에의 정부 종합청사 이전이 {정감록}의 예언과 전혀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솟을추

▼ 계룡산 연천봉 강선대(우)의 암각새(좌)





- ## ● 주제별